

navien

Vol.
141
2016 AUTUMN



NAVIEN

AUTUMN 2016 Vol.141

Contents




- 04 House Of Temptation | Villa Sunnano
- 10 Hobby of Honors | 갤러리
- 12 Space Environment | 침실
- 16 Trend
- 20 Life & Style | 러블리 하우스
- 24 Housing History
- 28 NAVIEN Story
- 32 Special Interview | 유지태
- 34 News
- 38 Readership

국가대표 보일러: **경동나비엔**

NAVIEN 발행일 2016년 10월 10일 발행인 최재범 발행처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6길 22
(여의도동, 코아미빌딩 신관) (주)경동나비엔 사보 담당 홍보팀 이수용 기획·디자인 및 제작 감 커뮤니티 02-6713-0999
문의 02-3489-2496 팩스 02-3489-2221

 www.facebook.com/NavienKorea

 www.kdnavien.co.kr



VILLA SUNNANO

DESIGNSTUDIO: Hans Murman, Architect SAR /MSA

LOCATION: Sunnano, Sweden

빌라 순나노(Villa Sunnano)는 스웨덴 중부의 달라르나 주(Dalarnas län, 州) 볼랑에(Borlänge)에 있다. 호숫가의 곳에 만들어진 주택은 블루베리 관목과 소나무가 우거진 울창한 숲, 3면으로 호수가 보이는 탁월한 조망을 자랑한다. 이 아름다운 주택을 디자인한 디자이너의 의도는 가장 먼저 독특하고 빼어난 입지의 자연환경과 조화로운 공간을 만드는 것이었다. 주택을 둘러싼 호수와 숲에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공간, 자연과 소통하는 공간을 만들면서 동시에 가족이 거주하기에 적당한, 주택이라는 공간의 목적을 잃지 않는 것이었다.

커다란 유리창과 곳곳에 사용된 전면 유리는 채광은 물론 자연과의 소통을 위한 장치다. 빌라 순나노에선 아침, 점심, 저녁 시시각각 변하는 호수와 숲의 풍경은 물론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주변의 변화를 볼 수 있다. 한편으로 디자이너는 거실, 응급실, 주방과 같은 공용 공간은 1층에 설치하고 침실과 사우나와 같은 사적인 공간은 2층에 설치했다. 전면 유리는 물론 곳곳에 사용된 열린 면(面)이 사용자의 사생활과 프라이버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편이다. 완전히 자연과 하나가 된 듯한 개방감과 안락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VILLA SUNNANO
by Murman Arkitekter AB

Murman Arkitekter AB는 1985년에 세워진 스웨덴의 디자인 스튜디오다. 오피스와 상업공간, 레지던스를 전문으로 작업하는 35명의 건축, 인테리어 디자이너들이 모여 있으며 다양한 어워드에서 수상하는 것으로 그 실력을 증명하고 있다. Murman Arkitekter AB의 작품은 개성있는 디자인과 독특한 공간이 특징이다. 스튜디오의 개성은 그들의 독특한 철학에서 나온다. '민주적이고 접근성이 좋은 공간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스튜디오의 철학이다.

날개처럼 펼쳐진 건물의 입구는 남쪽, 꽃과 육지가 닿은 쪽으로 열려 있다. 입구에서 북쪽 호숫가의 브리지(Foot Bridge)까지는 직선으로 이어져 있다. 마치 사람의 척추나 팽이의 회전축처럼 이 선을 따라 건물이 지어졌다. 덕분에 복잡해 보이는 구조임에도 안정적이며, 실내 공간을 효율적으로 계획할 수 있었다. 이 중심선에서 뻗어 나간 날개들은 각각의 용도가 확실한 공간으로 계획됐다. 1층은 대부분의 일상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TV와 소파, 벽난로가 놓인 거실, 운동기구가 놓인 트레이닝 룸, 주방과 식당, 응접실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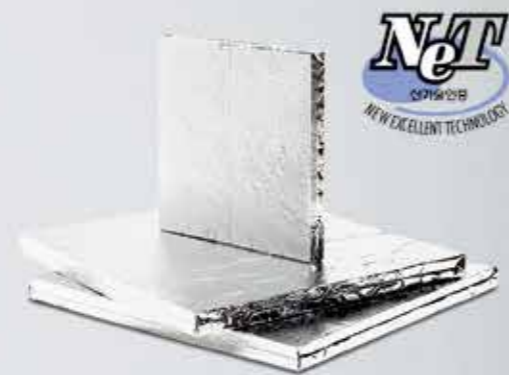
날개들의 끝은 테라스로 만들어졌다. 실내와 실외를 나누는 구분을 모호하게 함으로써 공간과 자연이 더욱 가깝게 느껴진다. 모든 방향으로 열린 공간에서 모든 방향으로 자연을 바라보는 즐거움을 주는 것은 물론이다. 덕분에 빌라 순노노에서는 집안 어디에 있던 숲과 호수를 볼 수 있다. 아침, 점심, 저녁을 가리지 않고 말이다. 뿐만 아니라 이 테라스는 공간의 전체적인 규모를 적절한 수준에서 조절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적당한 개방감으로 공간이 실제보다 넓어 보이게 만들기 때문에 공간의 규모가 작아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단열재의 세대교체

두껍고 낮은 성능의 기존 단열재보다
8배이상 뛰어난 단열성능을 가진
HYPER-VAC으로의 세대교체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고성능 흡드실리카 진공단열재 HYPER-VAC

- 기존 단열재 대비 8배 이상 우수한 열전도율(0.004W/mK)
- 화재에 안전한 무기소재로 준불연재료의 성능 보유
- 우수한 성능과 제품 안정성으로 기술표준원 신기술(NET) 인증
- 폭넓은 사용 온도대와 30년 이상의 수명 유지

단싱 단싱 콘덴싱

북극곰을 춤추게 하고 싶다면



Join the 콘덴싱

콘덴싱 보일러 1대 설치 시 1년에 CO2 587kg 감소 효과
이제, 지구온난화를 멈추고 콘덴싱을 켜세요



NCB 900
콘덴싱 노하우로
북미를 사로잡은 프리미엄 보일러



스마트톡
국가대표 보일러의
콘덴싱 기술과 IoT의 만남

Art Gallery of South Australia

1881년에 세워진 the Art Gallery of South Australia (AGSA)는 38,000점이 넘는 작품을 소장한 호주의 대표적인 갤러리 중 하나다. AGSA는 호주, 유럽, 북미, 아시아권의 작품을 두루 소장하고 있으며 호주 유일의 이슬람 갤러리가 지 갖춰 실로 방대하고 충실한 컬렉션을 자랑한다. AGSA의 컬렉션은 고대 로마에서 현대 미술에 이르기까지의 시대적 다양성은 물론 회화, 조각, 사진, 보석, 가구 등 소재와 형태를 넘나드는 다채로운 구성으로 유명하다. 작가와의 점심시간, 작가와 함께하는 갤러리 투어 등 다양한 작품만큼이나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작가와 함께하는 갤러리 투어는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색다른 경험으로 작품에 대해 깊고 풍부한 이해를 얻을 수 있어 인기가 많다.



: ALISON, EARLY 2000S
© ROBERT HANNAFORD,
WWW.ARTGALLERY.SA.GOV.AU



NORTH TERRACE,
ADELAIDE SA 5000,
AUSTRALIA

: ALISON, EARLY 2000S
© ROBERT HANNAFORD, WWW.ARTGALLERY.SA.GOV.AU

The mission of the Art Gallery of South Australia is to serve the South Australian and wider communities by providing access to original works of art of the highest quality. The Gallery seeks to foster, promote and enhance understanding and enjoyment of the visual arts in general through its permanent collections, temporary exhibitions and other public programs.



© ROBERT HANNAFORD, WWW.ARTGALLERY.SA.GOV.AU
: TSERING, 1997



꿈꾸는 작은 우주, 침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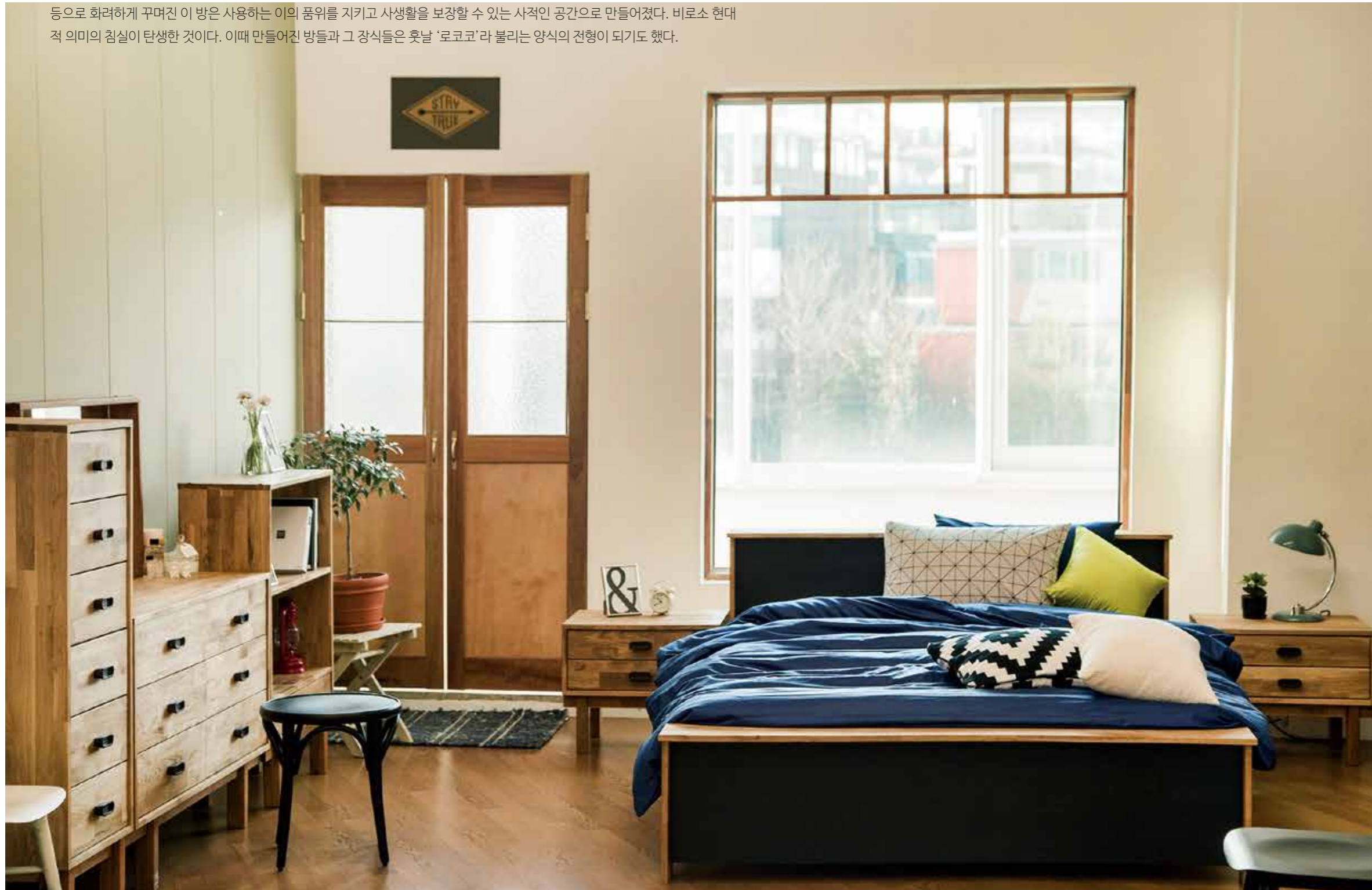
기록되지 않은 공간의 역사

인생의 3분의 1은 잠이다. 인류 역사의 3분의 1도 우리가 자는 동안에 지나갔다. 그래서 역사의 3분의 1은 기록되지 않은 시간이며 기록되지 않은 역사이기도 하다. 이 기록되지 않은 역사가 이루어진 곳은 주로 침실이었고, 우리가 그만큼의 시간을 보내는 곳도 침실이다. 침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하고 당연한 일이다. 우리 삶의 커다란 일부를 이야기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편으론 낯설고 심지어 수줍기도 하다. 침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사적이고 내밀하며 신성하기 때문이다.

15세기 즈음 오늘날 침대라고 부를만한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그전까지 귀족이 아닌 이들은 보통 맨 바닥에서 잤다. 이때의 침대는 많은 이들이 함께 사용해야 했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컸다. 침대가 만들어지자 침대에서의 규칙과 예절이 생겨났다. 많은 이들이 함께 모여서 잠을 잤기 때문에 사적이라기보다는 공용의 성격이 짙었다. 침대에 놓는 순서가 관습적으로 정해졌고 침대를 관리하는 일이 중요한 일과의 하나가 되었다. 물론 불편했겠지만 적어도 바닥에서 자는 것보다는 훨씬 폭신했을 것이다.

SPACE environment

18세기, 프랑스 루이 15세의 정부였던 퐁파두르 부인은 베르사유 궁전을 개조해 곳곳에 작은 방을 만들었다.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았던 그녀는 이렇게 만들어진 방들을 섬세하게 장식했다. 충분히 여성스러운 분위기, 조개 무늬와 소용돌이 무늬, 이국적인 벽지 등으로 화려하게 꾸며진 이 방은 사용하는 이의 품위를 지키고 사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사적인 공간으로 만들어졌다. 비로소 현대적 의미의 침실이 탄생한 것이다. 이때 만들어진 방들과 그 장식들은 훗날 '로코코'라 불리는 양식의 전형이 되기도 했다.



퐁파두르 부인이 만들어낸 침실은 사실 취침보다는 다른 목적을 갖고 있었다. 덕분에 지극히도 여성적이고 내밀한 공간으로 만들어졌다. 이 침실의 전형이 현재도 이어지고 있다. 여성의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으로 발전한 침실이 가정에서 가장 특별하고 고급스러우며 섬세한 공간이 된 것이다. 침실은 최신형 TV와 오디오, 커다란 소파로 과시적 남성성을 드러내는 거실과 비교된다. 침대 주변의 가족사진과 추억이 담긴 물건들은 이 공간의 내밀함과 신성함을 잘 보여준다. 프로이트는 침실을 부인, 아내와 특히 연관지어 이해하곤 했다.

20세기 초 할리우드 영화에 침실이 등장하기 전까지 침실은 지극히 사적인 공간이었다. 그러나 영화를 통해 침실은 욕망의 상징으로 대두했다. 철학자 슬라보예 지젝의 방식으로 표현한다면, 당시의 영화들은 무엇을 욕망해야 하는지와 어떻게 욕망해야 하는지를 알려 주었다. 할리우드 영화 속 침실은 부드러운 실크 잠옷과 호사로운 새틴 재질의 나이트가운을 걸친 아름다운 스타들의 공간, 화려한 소품과 고급스러운 가구가 놓인 환상적인 공간이었다. 영화를 본 여성들은 영화나 영화배우보다 그들의 침실에 더 주목했다.

현대에 이르러 침실에서 아이를 낳거나 임종을 맞이하는 일은 더 이상 익숙한 일이 아니다. 이제 그런 중요한 사건들은 침실을 벗어나 병원에서 일어나는 일이 되었다. 그럼에도 침실의 역할이나 중요성은 조금도 떨어지지 않았다. 여전히 우리가 침실에서 잉태되는 까닭이다. 침실은 집 안의 집, 내부의 작은 우주가 되었다. 이 작은 우주가 수면 그리고 부부만의 시간과 아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침실은 진정 행복한 곳, 가장 자유롭고 편안하게 꿈꿀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타가 바이크 Magic Instrument

하이브리드 자전거 혹은 하이브리드 유모차로 유명한 타가 바이크의 새로운 버전이 공개됐다. 넘어지지 않는 3륜 자전거 형태는 그대로다. 주로 아이를 태우는 용도로만 쓰였던 이전 모델보다 더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해진 것이 특징이다. 앞바퀴 사이의 공간에 바구니나 어린이용 시트를 설치할 수 있다. 어린이 시트를 2개까지 설치할 수 있어 아이 둘을 함께 태우고 다닐 수도 있어 쌍둥이도 걱정 없다. 또 시판용 카시트를 장착할 수 있어 여행지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덤으로 애완동물이나 짐을 싣기에도 좋아 쇼핑에도 활용할 수 있다. 한 가지 더 희소식은 전기로 움직이는 전기 자전거 버전도 준비 중이라는 것이다. 즐겁게 아이와 라이딩을 즐기는 것은 좋지만, 자전거가 너무 힘들까 걱정이라면 전기 자전거 버전으로 좀 더 우아하게 즐겨보자. 다양한 옵션으로 자신에게 맞는 맞춤 구성도 가능하다.

The Ultimate, Most Affordable Family Bike(www.tagabikes.com)



예컵 365 Yecompany inc.

예컵 365(Yecup 365)는 온도를 유지해 주는 흔한 텀블러가 아니다. 예컵 365는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스마트 텀블러다. 겨울이면 식어버린 커피를 따뜻하게 만들어 줄 수 있고, 여름이면 미지근한 물을 시원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는 말이다. 여름에는 작은 냉장고로, 겨울에는 작은 보온병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 사물인터넷 시대에 맞게 스마트폰과 연결해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 스마트폰으로 원하는 온도를 설정하면 설정된 온도로 내부의 온도를 조절하고 설정된 온도가 맞춰지면 텀블러 본체의 불빛과 스마트폰 알림으로 친절하게 알려주기까지 한다. 사무실 책상에 텀블러 본체를 올려놓고 충전하면서 사용한다면 충분히 하루 종일 따뜻하거나 시원한 음료를 마실 수 있다. 내장 배터리로는 최장 8시간까지 온도를 유지할 수 있어 거의 하루 종일 사용할 수 있다.

Wireless Mug for All Seasons(yecup.org)





보디 카디오 Withings

보디 카디오(Body Cardio)는 디지털 건강 측정 기기다.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져 가볍고, 인테리어 소품으로 써도 될 만큼 좋은 디자인을 가졌다. 겉모습은 누가 봐도 흔한 체중계로 보이지만 굳이 건강 측정 기기라 부르는 것은 체중계보다 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그저 슬림한 체중계 정도로 보이는 보디 카디오에 사용자가 올라서는 순간, 보디 카디오는 체중은 물론 심박 수와 혈압, 심혈관 경직도까지 측정해 준다. 간단히 체중을 측정하듯이 올라서기만 하면 체중과 비만도, 심혈관계 건강까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스마트 시대에 맞게 전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 헬스 메이트(Health Mate)와 연동해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도 있다. 디지털 건강 측정 기기라는 말이 어색하다면 스마트 시대에 어울리는 스마트 체중계라 불러도 좋을 것이다.

Know your body, Know your heart(www.withings.com)

깜빡 잊고 나왔다면~ 나비엔 Home IoT로 지구의 온도를 낮추자!

원격 영상 보안은 물론
원격 냉난방 제어까지!



제품 구입 및 A/S 문의는 전국 어디든 1588-1144

1588-1144

하나부터 열까지, 내 손으로 만드는 러블리 하우스

Tip 공간분리를 위해 세운 가벽에는 유리를 사용해 통풍과 채광을 원활하게 했다.

레터링으로 특색을 더한 현관은 블루 컬러를 사용해 입구부터 강한 인상을 주었고, 현관 앞 여유 공간에는 책을 보관하고 읽을 수 있는 서재를 만들었다.



장신인 가족을 위해 소파를 여러 개 두어 실용적이며, 마주 보며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밝고 화사한 느낌이 든다.



아이방: 아이들의 특색이 담긴 아이 방은 추가 조명을 설치한 파우더룸으로 연결되어 있다. 작은 아이의 방은 캐노피를 달아 여성스러움이 물씬 풍기고, 책상을 큼직하게 제작해 화장대 겸 책상으로 사용한다. 전체적으로 갈색 톤이었던 방을 화이트와 블루를 이용해 밝은 분위기로 꾸몄다.
침실: 셸프 도배와 페인팅의 조화가 이루어진 침실은 원목을 주로 사용해 차분하고 편안한 느낌으로 침대 헤드를 높게 디자인한 것이 특징이다.

부엌: 다른 공간에 비해 짙은 톤을 가진 공간으로 그레이와 화이트를 베이스 컬러로 해 모던하고 깔끔하며, 주방용품이 많아 최대한 수납에 신경 썼다. 직접 디자인한 6인용 식탁에 직접 만든 2인용 식탁을 붙여서 사용해 넉넉하고 실용적이다.

작업실: 남향에 위치하고 있어서 빛이 잘 들게 하기 위해 공간을 막지 않고 개방했으며, 가벽을 세워 공간을 분리했다.

따뜻한 보금자리를 채워온 경동나비엔 온돌과 보일러의 만남 III



연탄보일러의 가장 큰 단점은 연탄가스 사고의 위험성과 연탄을 주기적으로 갈아줘야 한다는 불편함이었다. 기름보일러는 연탄보일러의 이런 단점을 보완할 수 있었다. 가스로 인한 사고 위험이 없었고 수시로 연료를 갈아줄 필요가 없었다. 덕분에 기름보일러는 1975년 첫 등장 이후로 성장을 거듭해 1980년대 중반에 이르러 대도시는 물론 지방 농어촌까지 사용이 확대되었다. 당시 기름보일러의 급격한 성장 덕분에 시장에서는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고 결과적으로 업계의 기술력과 서비스가 한 차원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 현재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한국의 보일러 기술과 서비스가 성장하는 기틀이 된 시기였다.

1980년대를 넘어 1990년대 그리고 2010년대에 이르는 지금까지도 기름보일러는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80년대나 90년대에 그랬듯이 시장의 주류로 대접받지는 못하고 있다. 80년대 초반 등장한 가스보일러가 이제는 완전히 시장의 주류가 된 까닭이다. 아직 남아 있는 기름보일러도 점차 가스보일러로 교체되는 추세다. 가스보일러는 기름보일러에 비해 보일러 자체의 크기가 작아 설치가 편리하고 유지비가 저렴하다. 가장 큰 장점은 연료 공급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는 편리함이다. 특히 도시가스인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사용하기 편리한 방식이 시장을 지배하기 마련이다.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한국의 가스보일러는 이제 시장의 주류가 됐지만, 처음부터 인기를 끌었던 것은 아니다. 가정용 가스보일러가 한국에 처음 들어 온 것은 프랑스 제품을 수입한 1982년의 일이다. 1970년대에도 가스를 연료로 사용한 사례가 있었지만, LPG 가스를 주방에서 사용하는 정도였다. 그러다 1979년 2차 석유파동을 계기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가스 사용을 권장하기 시작했다. 석유의존도 감소와 가정용 연료의 고급화를 위해 가스 사용을 늘리는 정책을 펼쳤고 그 결과로 가정용 가스보일러가 도입됐다. 가스보일러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에 들어서다.

다음 호에 계속



사랑하는 마음은 같아도 좋아하는 온도는 다르니까 Join the **나비엔**

스마트 분리 난방으로 각자 원하는 꿀잠온도를 찾자

한 침대, 한 매트 위에서 자는 부부라도 각자 원하는 온도는 다르니까
이제, 나비엔 온수매트의 섬세한 분리난방으로 따로 또 같이 쾌적한 온도를 즐기세요



국가대표 보일러의 온도제어 기술 그대로
경동나비엔의 온도제어 기술 NTC 테크놀로지로
보일러를 통해 정확하고 쾌적한 온도를 구현합니다



안전 또 안전! Safety 1st 안전 설계 시스템
차일드락/고온모드 잠금기능/다중안전시스템으로
가족 모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경동나비엔만의 안심 서비스
365일 24시간 행복하는 콜센터 1588-1144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A/S 센터



경동나비엔의 원칙으로 만든 프리미엄 매트
메트리스의 안락함이 그대로 느껴지는 쿼션 매트와
편리함과 간편함이 극대화된 슬림 매트를 만나보세요



국가대표 보일러가 만든 또 하나의 보일러



나비엔 콘덴싱보일러, 당신의 삶과 소통하는 키다리 아저씨

세계적인 사업가인 빌 게이츠가 자신의 저서 <생각의 속도>를 통해 전망한 바대로 우리는 '속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인터넷과 통신의 발달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더욱 빠르고 효율적인 이기를 요구 받는 시대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는 항상 쫓기듯 일상을 헤쳐나간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앉아 밥 한끼를 나누기가 어려울 정도로 바쁜 일상과 주변을 돌아볼 작은 여유마저 허락되지 않는 치열한 경쟁은 우리가 매일 마주하고 있는 차가운 현실이다. 그리하여 '속도의 시대'는 마침내 '스마트'라는 탈출구를 만들어냈다. 바쁜 생활 속에서 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꼭 맞는 대안을 찾는 사람들의 마음은, 기술의

발전과 맞물려 각자의 기호를 고려해 더욱 편리한 기능을 제공하는 똑똑한 제품으로 향하고 있다. 손에서 떼놓기 힘들 정도로 삶 속에 깊이 자리매김한 스마트폰은 물론,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과 자동차까지 이제는 '스마트'를 외치는 것도 이러한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올해 이세돌 9단과 알파고가 만든 세기의 대국을 통해 또 다른 가능성을 확인하면서, 생활의 편의성을 높이는 '스마트 기기'에 대한 기대는 더욱 높아지는 분위기다. 학습을 통해 정보를 취득하고, 이를 토대로 더욱 효율적인 결정을 만들어가는 인공지능(AI)은 각자 다른 생활환경과 기호를 가진 사람들에게 맞춤형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실제로 인공지능은 이미 우리의 삶 속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메일에서 스팸 메일을 분류해내거나, 인터넷에서 단어를 입력하면 그에 맞는 문서와 사진을 검색하거나, 아이폰에서 음성을 인식해 명령을 수행하는 시리(Siri)와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리고 미처 인식하지 못했지만, 이미 오래 전부터 우리 삶 속에 자연스럽게 함께 하며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을 선사하고 있는 또 다른 기기도 있다. 바로 우리의 생활을 따뜻하게 데우는 나비엔 콘덴싱보일러다. 높은 효율로 에너지를 크게 절감하는 동시에 미세 먼지의 주범인 질소산화물과 지구 온난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온실가스까지 줄여 친환경 고효율 보일러로 잘 알려진 콘덴싱보일러는, 이제 인공지능과의 결합을 통해 당신에게 더욱 쾌적한 생활을 선사하고 있다.



보일러를 사용할 때 우리는 실내온도를 설정하면 자연히 그 온도가 구현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하지만 슬프게도 이는 우리의 바람일 뿐이다. 대부분의 보일러는 난방을 위해 바닥으로 보내는 물의 온도만 체크하여 실내 온도를 조절하기 때문에 날씨가 춥거나, 비가 오거나, 단열이 잘 안 되거나 하는 각자 다른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못한다. 때문에 같은 24도를 설정하더라도 어느 집은 덥고, 다른 집에서는 추운 현상이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바닥이 열을 충분히 머금어야 이를 실내로 전달하는 온돌난방의 특성상 더웠다 추웠다 하는 온도 널뛰기 현상이 일어나 불편을 겪는 경우도 많았다. 다시 말해 원하는 온도를 설정했지만 방의 온도가 설정 온도보다도 더욱 올라가 오히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야 했고, 새벽에는 추워서 눈을 떠 보니 보일러는 켜져 있는데도 따뜻해지기까지는 한참을 기다려야 했던 당황스러운 경험이 있다면, 그것은 “내 이야기”를 외면하는 보일러 탓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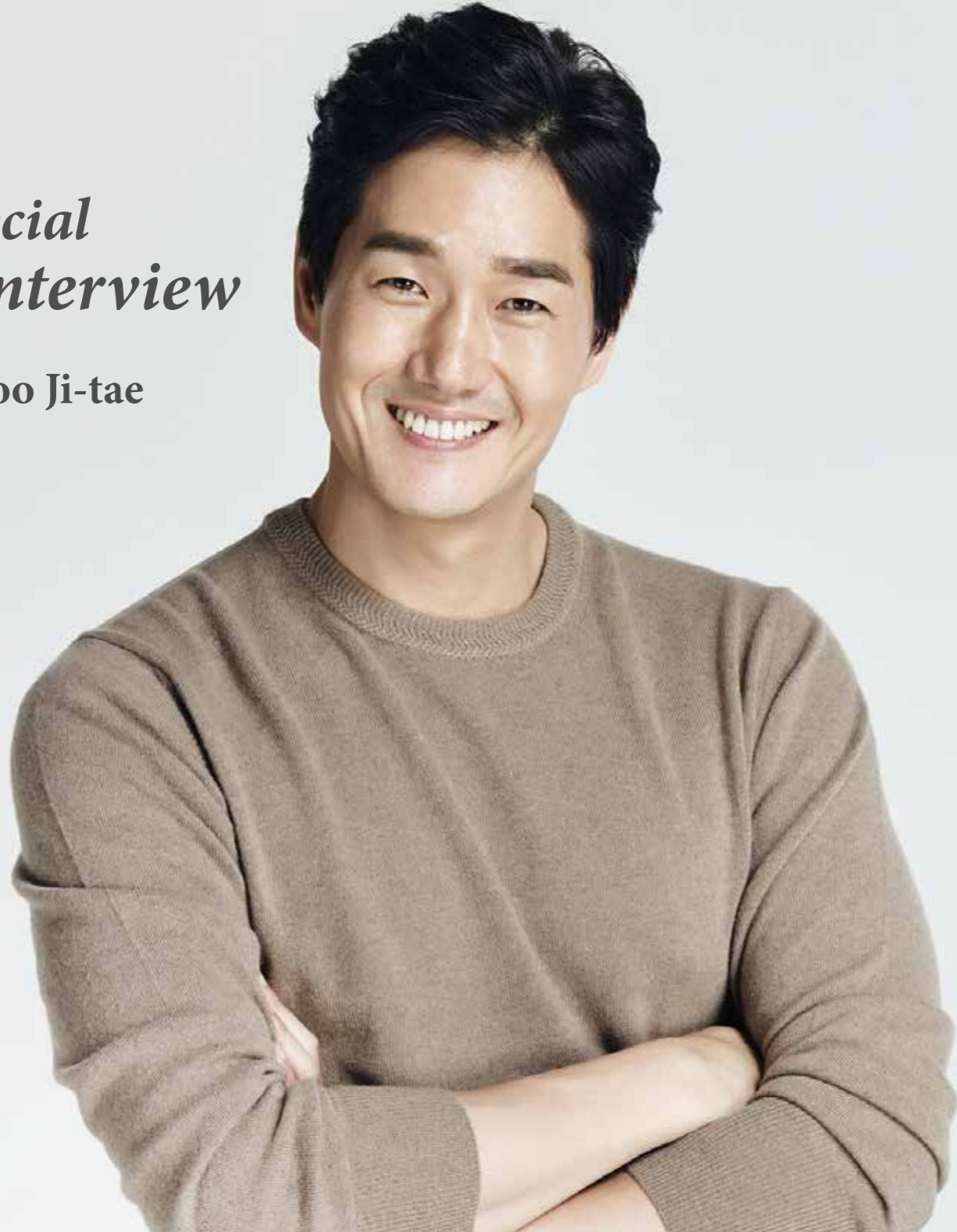
하지만 난방 시가 적용된 경동나비엔의 콘덴싱보일러는 날씨, 계절의 변화, 각 가정의 난방 환경을 학습해 정보를 취득하고 더욱 효율적으로 난방을 진행함으로써 일관되고 정확한 온도를 구현한다. 바닥을 데우고 돌아오는 물의 온도로 추위의 정도를 파악해 추운 날은 더욱 따뜻하게 방을 데우고, 주변의 날씨가 따뜻한 날은 난방의 세기를 줄이는 방식이다. 또한 온도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학습해 이를 다시 난방에 반영하여 세밀하게 온도를 조절한다. 온돌이 간직한 열을 은은하게 배출하는 시간까지 고려해 보일러를 설정온도보다 조금 먼저 끄고, 온돌이 데워지는 시간을 감안해 실내 공기가 차가워지기 전 보일러를 미리 켜기 때문에 온도 널뛰기 현상도 없다. 나비엔 콘덴싱보일러는 나의 생활환경과 소통하며 내가 원하는 포근한 온기를 전하는 ‘키다리 아저씨’인 셈이다.

바쁜 당신을 위해 오늘날의 보일러는 더욱 똑똑해졌다. 사물인터넷(IoT) 기술과의 접목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든 보일러를 켜고, 끄고, 온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변화했다. 힘들었던 하루, 제법 쌀쌀해진 날씨에 마음까지 움츠러드는 저녁이라면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보일러에게 내가 원하는 온도를 얘기해 보자. 집안 구석, 보일러실에 조용히 숨어 있지만 나비엔 콘덴싱보일러는 하루의 피로를 녹이는 최적의 온도로 당신을 맞이할 것이다. 어제와 날씨도, 온도도 달라졌지만 변함없이 어제와 꼭 같은, 한결 같은 쾌적함으로 말이다.



Special Interview

Yoo Ji-tae



경동나비엔 새 광고모델 배우 유지태와의 인터뷰

지난 여름 방송된 인기드라마 '굿와이프'에서 나쁜남자 역을 맡아 큰 인기를 얻었던 유지태가 경동나비엔의 새로운 광고모델로 돌아왔다. 명품 연기뿐만 아니라 꾸준히 나눔과 선행을 실천하는 배우로도 잘 알려진 그가 경동나비엔 광고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광고 촬영이 모두 끝난 뒤, 유지태를 만났다.



Q. 경동나비엔의 새 광고모델로 발탁되셨는데, 처음 제안을 받고 기분이 어떠셨나요?

A. 보일러 광고모델은 처음인데, 제안을 받고 경동나비엔이 어떤 회사인지 찾아보게 됐어요. 찾아볼수록 이 회사에서 모델 제안이 왔다는 게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기꺼이 하겠다고 했죠.

Q. 어떤 부분에서 그런 생각이 드셨나요?

A. 국내에서 대표적인 보일러회사인 줄만 알았는데,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에 적극 나서는 회사더라고요. 지금보다 환경에 관심이 부족하던 1980년대부터 무관심 속에서도 곳곳이 에너지와 환경을 생

각한 콘덴싱보일러를 개발하고, 끊임없이 기술을 키워서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미국, 러시아 시장 1위까지 하고 있다는 게 인상 깊었어요. 콘덴싱보일러가 일반보일러보다 에너지 사용량을 20% 가까이 줄여주고, 그만큼 지구온난화와 대기오염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모델을 맡고 나서 살펴보니, 저희 사무실에 설치한 보일러들도 모두 경동나비엔 보일러였어요.

Q. 환경에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려져 있는데,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A. 저도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나중에 제 아이가 깨끗한 환경에서 살았으면 하는 바

람이 있어요.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어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노력하는 편이에요. 최근에 자동차도 전기차로 바꿨어요. 보통 미세먼지 하면 자동차 배기가스부터 떠올리게 되는데, 일반보일러 한 대를 콘덴싱보일러로 바꾸면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인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80% 가까이 줄어 들고 1년에 소나무를 200그루 넘게 심는 효과가 있대요. 에너지를 적게 쓰니까 연료비 부담도 줄고, 지구 환경에도 좋으니 추천할 수밖에 없는 제품 같아요. 이번 광고를 통해서 저도 친환경 고효율 콘덴싱보일러 보급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게 된 것 같아 기쁘게 생각합니다.

Q. 얼마 전 드라마 '굿와이프'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는데, 다음 작품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A. 요즘은 내년에 개봉할 영화 '꾼' 촬영에 매진하고 있어요. 그리고 11월에는 올해 상반기에 찍었던 영화 '스플릿'도 개봉합니다. 유쾌하고 코믹한 캐릭터를 선보일 텐데, 새로운 모습 기대해 주세요. 그 전에 당분간 TV를 통해 경동나비엔 광고로 자주 인사 드리겠네요. (웃음)



경동나비엔 새 TV CF 온에어



경동나비엔이 지난 10월 1일부터 배우 유지태가 등장해 콘덴싱보일러의 친환경성과 프리미엄 온수매트의 가치를 전달하는 CF 시리즈 3편을 온에어했다. 이번 광고는 지구온난화와 미세먼지 등으로 심각한 사회적 이슈가 된 ‘친환경’을 화두로 하여, 지구의 미래 환경을 생각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경영철학을 전달하고 친환경 소비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한층 진화된 프리미엄 온수매트 ‘나비엔 메이트’ 출시



경동나비엔이 2017년형 온수매트 신제품을 출시했다. 신제품 ‘나비엔 메이트’는 최적의 온도를 만드는 안전하고 정확한 온도제어 기술력이 담겨 있으며 보일러 및 매트 라인업을 다양화하여 더욱 건강하고 쾌적한 수면을 선사한다. 공식 쇼핑몰인 ‘나비엔하우스’ (www.navienhouse.com)와 CJ오쇼핑, 현대홈쇼핑, GS홈쇼핑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구입문의: 1588-1144)

경동나비엔 북경법인, 중국 북경에 신공장 건설



지난 9월 22일 경동나비엔 북경법인이 현지 정부 귀빈과 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 시장 공략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북경 신공장 건설을 위한 기공식을 가지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신규로 건설되는 북경공장은 약 48,000㎡ (14,500평) 면적에 2020년까지 완공될 계획이며, 완공 시 연간 50만대의 보일러 및 온수기 신규 생산능력을 갖출 예정이다.

경동나비엔, 뿌리기술경기대회 대상(국무총리상) 수상



지난 9월 12일, 경동나비엔 생산2팀 용접2파트가 ‘2016년 뿌리기술경기대회’ 용접부문에서 대상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단체전 1위: 허권희 기선, 개인전 동상: 김원복 기사) 경동나비엔은 전국에서 최고 기량을 갖춘 용접사들이 모여 각 기업의 제조기술력을 겨루는 최대 규모의 대회에서 전통적인 강호인 조선, 자동차, 중공업, 건설 등을 제치고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13년 연속 ‘한국소비자웰빙지수(KS-WCI) 1위’ 선정



경동나비엔 콘덴싱보일러 ‘나비엔 콘덴싱 스마트 토크(TOK)’이 13년 연속 ‘2016 한국소비자웰빙지수(KS-WCI) 1위’로 선정됐다. 이 제품은 스마트폰을 통해 원격제어가 가능한 고효율 친환경 콘덴싱보일러로, 일반 가스보일러 대비 최대 28.4%까지 가스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CO₂(이산화탄소)는 물론 유해물질인 NOx(질소산화물) 저감량이 커 대기질 개선 효과가 탁월하다.

한국품질만족지수(KS-QEI) 10년 연속 1위 선정



경동나비엔이 가스보일러, 콘덴싱 가스보일러, 온수매트 부문에서 한국품질만족지수 1위 기업으로 선정됐다. 특히 지난해 출시한 프리미엄 온수매트 ‘나비엔 메이트’가 2016년 신설된 온수매트 부문의 첫 수상자로 선정됐으며 가스 보일러 부문 10년 연속, 보일러 전 부문 7년 연속 1위를 차지해 명실공히 이 분야 최고 기술력을 가진 기업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프리미엄브랜드지수 온수매트 부문 1위 선정



프리미엄 온수매트 ‘나비엔 메이트’가 ‘2016 프리미엄브랜드지수’ 온수매트 부문에서 최고의 브랜드로 선정되었다. ‘나비엔 메이트(NAVIEN MATE)’는 보일러 업계 1위 기업인 경동나비엔이 가진 세계 최고 수준의 보일러 온도제어 기술력을 그대로 적용한 제품으로, 기존 온수매트의 가장 큰 단점으로 지적되던 저온화상 문제를 해결하여 소비자에게 큰 호평을 받았다.

7년 연속 ‘대한민국 올해의 브랜드 대상’ 수상



경동나비엔이 ‘2016 대한민국 올해의 브랜드 대상’에 7년 연속 선정되며 대한민국 최고의 보일러 브랜드임을 다시 한번 인정 받았다. 경동나비엔은 2015년 무역협회 기준으로 우리나라 보일러 업계 전체 수출액의 71.8%를 담당하고 있으며, 온실가스과 미세먼지를 줄이는 친환경 고효율의 콘덴싱보일러 보급을 주도함으로써 국가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과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제3회 건축 및 산업용 단열재 기술 세미나 참가



지난 7월 6일, 화학경제 연구원에서 주최한 제3회 건축 및 산업용 단열재 기술 세미나에 경동원이 연사로 참가했다. 경동원이 발표한 주제는 '퍼라이트 골조 FS(Fumed Silica)계 진공단열재 개발과 응용 전망'으로, 진공단열재의 특성, 퍼라이트 골조를 갖는 FS계 진공단열재 제조기술과 FS계 진공단열재 적용 현황 및 전망에 대해 강연했다. 국내 건축 법규에서 건축물에너지절약설계기준이 2025년까지 제로에너지하우스를 향해 단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동원의 '하이퍼-백'은 우수한 단열성과 화재안전성으로 세미나에서 큰 관심을 모았다.

패시브제로에너지건축 기술세미나 및 관련 기업 전시회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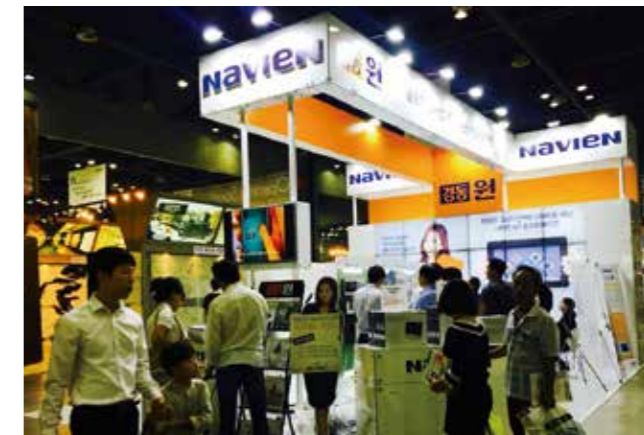
경동원이 지난 8월 26일에 개최된 '패시브제로에너지건축 기술세미나 및 관련기업 전시회'에 참가하여 고성능 흡드실리카 진공단열재 '하이퍼-백'을 선보였다. '하이퍼-백'은 패시브 및 제로에너지하우스에 적합한 고성능 건축용 단열재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단열재인 스티로폼에 비해 약 8배 이상의 단열성능을 갖췄으며, 준불연재료이기 때문에 기존 단열재의 화재 시 유독가스 배출 위험성까지 말끔히 해소한 제품이다. 하이퍼-백은 이러한 우수성을 인정받아 올해 3월부터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여객터미널 리모델링 공사에 외벽 단열재로 적용되고 있다.

네덜란드 경제사절단, 미래창조과학부에 앞선 사물인터넷(IoT) 기술 선보여



경동원이 9월 27일, 네덜란드 하이테크 산업 경제사절단의 요청으로 기업 방문 행사를 진행했다. 한-네덜란드 간 정상회담의 일환으로 스마트홈 관련 글로벌 기업인 그린피크를 비롯해 첨단 산업 기업들이 방문한 가운데, 경동원은 사물인터넷 통합 솔루션을 선보이며 스마트홈 시장의 미래 방향성을 제시해 호평을 받았다. 다음날 28일에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함께 '기업 현장 방문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경동원은 미래부 정책담당자들과 한국정보화진흥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계를 대표해 스마트홈 제품·서비스 간 상호운용성 확보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필요한 지원을 요청했다.

MBC건축박람회, 부산경향하우징페어에서 앞선 Home IoT 기술 뽐내어



경동원 네트워크사업부가 지난 8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제42회 MBC건축박람회'와 9월 1일부터 4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2016 부산경향하우징페어'에 차례로 참가했다. 스마트홈 시장에서 뛰어난 사물인터넷 기술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경동원은 이번 전시에서도 홈 IoT를 적용한 원격제어 기술을 다양하게 뽐냈다. 나비엔 홈 IoT 시스템은 별도의 서버 구축 없이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보일러, 조명, 가스밸브 제어 및 침입감지가 가능하며, CCTV 설치 없이도 홈오토 내장 카메라로 집안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독자와 navien이 함께 만드는
READERSHIP

추첨을 통해 참여해 주신 분들께
인테리어 강연 초대권을 드립니다.



navien의 인증샷을 찍어서
간단한 소개와 함께 보내 주세요.
읽고 난 느낌, 다뤄봤으면 하는 이야기도 환영합니다.
우리집 경동나비엔 제품 인증샷을 찍어서
간단한 사연과 함께 보내 주셔도 좋습니다.

마감 2016년 11월 20일 보내실 곳 sylee3@kdiwin.com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6길 22, 6층(여의도동, 코아미빌딩 신관)
(주)경동나비엔 홍보팀 사보 담당자 앞

국가대표 보일러: **경동나비엔**

www.kdnavien.co.kr

경동나비엔 캐스케이드 시스템 대형 건물 난방 관리의 기준을 제시하다

국가대표 보일러 경동나비엔의 기술력에
대한민국 최초 통합(난방/급탕) 캐스케이드를 만들어낸 책임감이 더해져
대형 건물 난방 관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다

- 국가대표 보일러의 기술로 완성한 **제품력**
- 다양하고 풍부한 시공경험을 통한 **기술력**
- 설계부터 첨단 시후관리까지 책임지는 **토탈솔루션**
- 한 번 써본 고객은 다시 선택하게 되는 **높은 재구매율**



제품력
기술력
토탈
솔루션
높은
재구매율



:: 경동나비엔 캐스케이드 시스템 :: <http://www.cascade.co.kr>

건축주가 찾는 시스템

- 에너지 절약 고효율 콘덴싱 기술 / 필요한 만큼만 운전하는 대수제어
- 유지관리 **항상** 방정관리자 불필요 / 일부 고장에도 운전 가능
- 쾌적성 **항상** 조용한 운전 / 순간급탕 방식 / 원격제어 시스템

건설사/설계사가 찾는 시스템

- EPC수 획득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 비례 및 다단계에 운전
- 투자비 **절감** 저렴한 장비 단가 / 설치공간 최소화
- 시공성 **항상** 이설 및 증설 용이 / 일체화 모듈 / PVC연도 적용

국가대표 보일러:
경동나비엔
고객문의 1588-1144

* 국내 보일러 제조사별 제품 매출액 1위 (2015년 금융감독원 공시자료 기준)
* 국내 보일러 및 가스온수기 수출액의 71.8% 차지 (2015년 한국 무역협회 자료 기준)

대한민국 최초로 콘덴싱을 개발했다

힘들고 외로웠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가스비가 줄었다

미세먼지를 줄였다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함께했다

보일러 하나가 이제 모두의 지구를 지킨다

콘덴싱이 올랐다



1988년 아시아 최초
콘덴싱보일러 개발

1999년 업계 최초
콘덴싱보일러 환경마크 획득

2000년 업계 최초
콘덴싱보일러 KS 인증 획득

2002년 업계 최초
콘덴싱가스보일러 미국 수출

2009년 업계 최초
탄소성적표지 인증 획득

2015년 북미
콘덴싱보일러 & 온수기 1위



NCB 900

28년 콘덴싱 노하우로
북미를 사로잡은 프리미엄 보일러



스마트툑

국가대표 보일러의
콘덴싱 기술과 IoT의 만남

[고객문의] 1588-1144

콘덴싱 28년
국가대표 보일러:
경동 나비엔